

소양강유역의 지석묘 및 불적
 (昭陽江流域의 支石墓 및 佛蹟)
 소양강댐 수몰지역내유적
 (昭陽江 水沒地域內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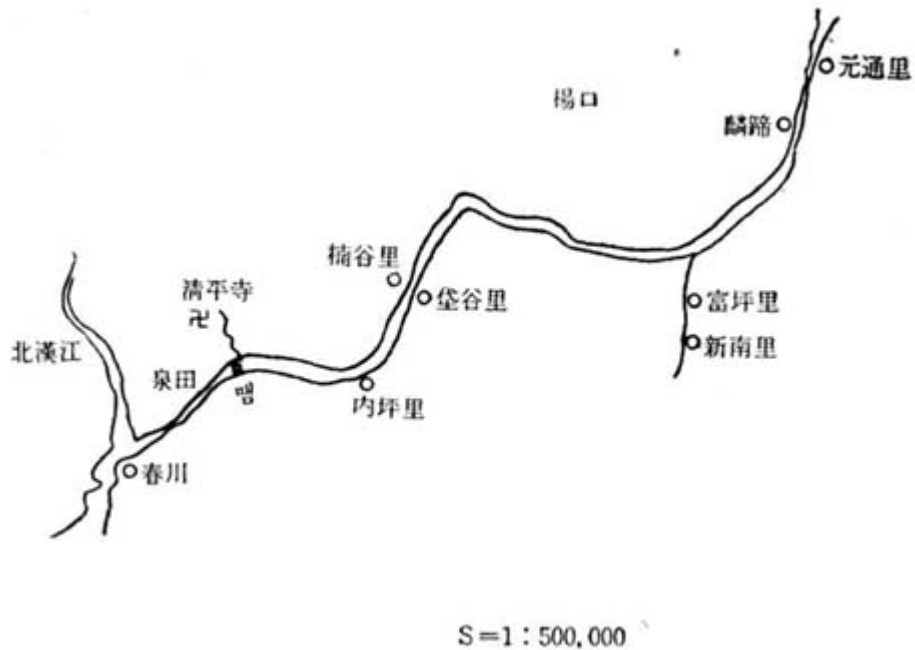


圖 1 소양강 유역도(昭陽江 流域圖)

夫餘博物館長
 姜 仁 求

1. 서언(序言)

소양강(昭陽江)은 북한강(北漢江)의 일지류(一支流)로서 설악산(雪岳山)에서 발원(發源)하여 인제(麟蹄) 양구(楊口) 춘성(春城)의 삼군(三郡)을 차례로 관류(貫流)하고 춘천(春川)에 이르러 화천방면(華川方面)에서 흘러 오는 북한강(北漢江)과 합류(合流)된다(圖1). 금번(今番) 건설부(建設部)계획(計劃)으로 시설(施設)하는 댐은 춘성군북산면청평리수구동(春城郡北山面淸平里水口洞)¹⁾의 강목(江目)에 위에 위치(位置)하여 그곳으로

1) 春城郡北山面淸平里水口洞은 淸平寺廻轉門이 所在한 溪谷과 만나는 곳이며 댐이 完成되면 淸平寺는 水沒되지

부터 상류(上流)의 인제군인제읍이평리(麟蹄郡麟蹄邑이평里)까지 해발(海拔) 198m 유역(流域)이 수몰(水沒)된다. 거리(距離)는 지류(支流)까지 포함(包含)하여 약(約) 160km에 달(達)하고 강(江) 양안(兩岸)은 500~800m의 험준(險峻)한 산줄기가 깎아지른 듯 병풍(屏風)처럼 서있고 점점(點點)이 하안단구식(河岸段丘式)의 퇴적층(堆積層)이 있고 그곳에 취락(聚落)이 형성(形成)되어 있다. 본(本) 조사(調査)는 이들 지역(地域)을 실답사(實踏査)한 지표조사(地表調査)이다. 이 소양강유역(昭陽江流域)은 춘천(春川)교동(校洞)의 선사혈거유적(先史穴居遺蹟)²⁾과 천전리(泉田里)의 지석묘(支石墓)와 적석총(積石塚)³⁾등 중요(重要)한 유적(遺蹟)이 보고(報告)되어 있고 다시 강(江)을 거슬러 올라가 춘성군북산면추전리(春城郡北山面楸田里)에서 석검(石劍)⁴⁾이 출토(出土)된 일이 있으며 또 이 강(江)의 상류(上流)인 인제읍남북리(麟蹄邑南北里)에서 석검(石劍)이 출토(出土)된 사실(事實)이 있으며 최근(最近)에 춘천교육대학(春川教育大學)의 조동걸교수(趙東杰教授)가 새로 지석묘(支石墓)6묘(墓)를 발견(發見)하여 춘천교육대학논문집(春川教育大學論文集)⁵⁾⁶⁾에 보고(報告)하였다. 금번(今番) 조사(調査)에서 필자(筆者)는 전기(前記) 조교수(趙教授)의 안내(案内)로 함께 재조사(再調査)를 하였으며 본보고문(本報告文)에 이들을 포함(包含)하였다.

2. 지석묘(支石墓)

1. 내평지역(內坪地域) 지석묘사기(支石墓四基)

①춘성군북산면내평일리612번지(春城郡北山面內坪一里612番地) 송중옥씨(氏) 소유토지(所有土地)(田)에 지석묘2기(支石墓2基)가 있다(圖2). 춘천(春川)~양구(楊口)간(間) 국도(國道)에서 북(北)쪽으로 3m 떨어져 2기(基)가 4.5m의 사이를 두고 장축(長軸)을 동서(東西)로, 즉(卽) 강(江)의 류향(流向)과 나란히 위치(位置)하고 있다. 모두 편마암 판석(片麻巖板石)을 사용(使用)하고 있으며 개석(蓋石)의 하반(下半)은 매몰(埋沒)되어 지석(支石)의 대부분(大部分)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중(其中) 서(西)쪽것의 1매(枚)가 탈락(脫落)되어 노출(露出)되어 있다. 기중(其中) 동(東)쪽것은 크기가 장경(長徑)2.9m, 단경(短徑) 2.8m, 두께 0.5m, 둘레 9.3m로 거의 방형(方形)이다. 서(西)쪽것의 크기는 장경(長徑) 2.6m, 단경(短徑) 1.5m, 두께 0.25m, 둘레 5.2m가량으로 타원형(橢圓形)이다. 2기(基) 모두 북방식지석묘(北方式支石墓)로 생각된다.

양으나寺로 들어가는 唯一한 道路가 水沒되어 淸平寺는 孤立되어 指定文化財管理에 많은 支障을 招來할 것이다.

2) 金元竜 春川校洞穴居遺蹟 史學報輯20

3) 金元竜 春川泉田里的 支石墓 積石塚 美術資料第4輯 國立博物館 1961 韓國支石墓研究 國立博物館 1967

4) 金元龍 韓國史前遺跡遺物地名表 서울大學校文理科大學 1965

5) 麟蹄郡麟蹄邑南北里에서 數年前에 石劍이 駐屯 工兵隊에 依하여 發見되어 現在 麟蹄中高等學校에 保管되어 있음.

6) 趙東杰 북한강 유역의 고인돌 春川教育大學論文集 1970



(圖 2 내평1리 동측지석묘(內坪一里 東側支石墓))

② 춘성군북산면내평2리(春城郡北山面內坪二里) 국도변(國道邊) 안(安)만순씨가(家)의 뒤을안에 지석묘(支石墓) 1기(基)가 있다.(圖3) 외형(外形)은 내평(內坪)1리(里)의 서(西)쪽것과 대략(大略) 비슷하고 크기는 개석(蓋石)이 장경(長徑) 2.7m, 단경(短徑) 1.6m, 두께 0.35m, 둘레 5.2m로 장축(長軸)을 동서(東西)로 강(江)의 방향(方向)과 나란히 하고 있다. 이 개석(蓋石) 북(北)쪽으로 2m거리에 지석(支石)3매(枚)가 있는데 크기는 1.35m×0.9m×0.17m의 판석(板石)이며 3매(枚)가 나란히 놓여 안씨가(安氏家)에서 장독대(臺)로 사용(使用)하고 있다. 수년전(數年前)에 개석(蓋石)하(下)에서 석기(石器)2점(點)을 도굴(盜掘)하여 거주(家主)가 소유(所有)하고 있다는 말이 있으나 본인(本人)은 부인(否認)하여 찾을 길이 없다. 지석(支石) 등(等)으로 보아 북방식지석묘(北方式支石墓)로 생각된다.

③ 춘성군북산면내평2리(春城郡北山面內坪二里) 면사무소(面事務所)에서 국도(國道)를 따라 북(北)쪽으로 200m 거리(距離)의 강안(江岸) 천석(川石)위에 지석묘(支石墓) 1기(基)가 있다(圖4). 석질(石質)과 외형(外形)은 내평(內坪)1리(里) 것하고 개석(蓋石)의 크기는 장경(長徑) 3.5m, 단경(短徑) 2.5m, 두께 0.5m, 둘레 9m이다. 또 지석(支石)으로 보이는 판석(板石)1매(枚)가 40m 남(南)쪽 천석(川石)위에 놓여있다. 본래(本來)이 지석묘(支石墓)는 조교수(趙教授)의 말에 의하면 도로변(道路邊) 퇴적사질토층(堆積砂質土層)위에 있던 것이 65년도(年度) 홍수(洪水)에 떠밀려 현위치(現位置)에 놓여진 것이라 한다. 부장유물(副葬遺物)은 원위치(原位置)의 사중(砂中)에 매몰(埋沒)되어 있을 가능성(可能性)이 크다.

2. 추전지역(楸田地域) 지석묘(支石墓) 1기(基)

④ 춘성군북산면추전리(春城郡北山面楸田里) 가랫양지꼴 국도(國道)에서 강(江)쪽으로 25m 거리(距離)에 지석묘(支石墓) 1기(基)가 밀밭가운데 있다(圖5). 추전(楸田)국민학교(國民學校)에서 춘천(春川) 쪽으로 약(約) 1km의 거리(距離)이다. 개석(蓋石)의 크기는 장경(長徑) 2.2m 단경(短徑) 1.7m, 두께 0.4m, 둘레 7m, 석질(石質)은 역시(亦是) 편마암(片麻巖)이다. 지석(支石)은 3매(枚)가 반(半)쯤 노출(露出)되어 있다. 이 지석묘(支石墓)의 강(江)쪽에 민묘(民墓)2기(基)가 접(接)해 있다. 북방식지석묘(北方式支石墓)로 생각된다.



(圖 3 내평이리 안씨 가내 지석묘의 개석 및 지석(內坪二里 安氏 家內 支石墓의 盖石 및 支石))



(圖 4 내평리 강안 지석묘(內坪里 江岸 支石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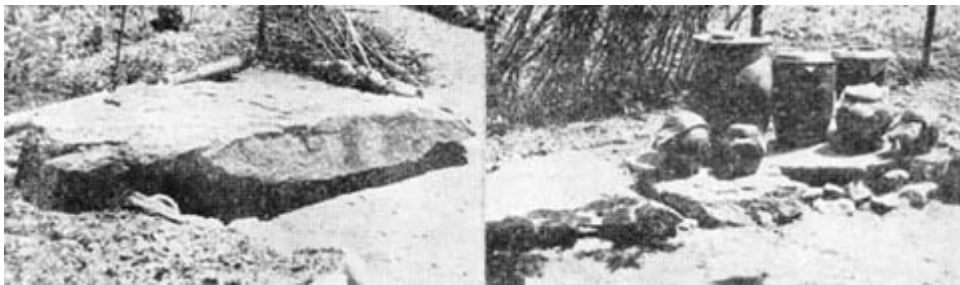
(圖 5 추전리 지석묘(楸田里 支石墓))

3. 대곡지역(垓谷地域) 지석묘(支石墓)4기(基)

⑤ 춘성군북산면대곡리(春城郡北山面垓谷里) 지거부씨(池巨富氏) 소유전(所有田), 추전리(楸田里) 삼팔교(三八橋)의 대안(對岸) 퇴적점토질토층(堆積粘土質土層)에 북방식지석묘(北方式支石墓)1기(基)가 있다(圖6). 개석(盖石)의 크기는 장경(長徑) 2.3m 단경(短徑) 1.7m, 두께 0.23m, 둘레 7m, 외형(外形)은 타원형(橢圓形)이고 편마암(片麻巖)이다. 개석(盖石)아래에는 지석(支石)2매(枚)가 반(半)쯤 노출(露出)되어 도괴(倒壞)되어 있고 개석(盖石)의 방향(方向)은 강향(江向)과 나란하다. 69년도(年度) 7월전(月前)에는 지석(支石)3매(枚)가 원위치(原位置)에 정립(正立)하고 있고 서벽석(西壁石)만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 개석(盖石)아래와 주위(周圍)에서는 적갈색(赤葛色)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들이 산견(散見)되어 수점(數點) 채집(採集)하여 개석내(盖石內)에 넣어 두었다.

⑥ 춘성군북산면대곡리(春城郡北山面垓谷里) 484번지(番地) 현구봉(玄九鳳)씨(氏) 소

유전(所有田)에 지석묘(支石墓)1기(基)가 강류향(江流向)과 같이 남북(南北)으로 놓여 있다(圖7). 강안(江岸)에서 동(東)쪽으로 35m 거리(距離) 퇴적점토질토층(堆積粘土質土層)위이다. 개석(蓋石)은 편마암(片麻巖)으로 크기는 장경(長徑) 2.2m 단경(短徑) 1.15m, 두께 0.42m, 둘레 5.9m의 지석(支石)1매(枚)가 탈락(脫落)노출(露出)되어 있고 여타(餘他)는 개석(蓋石)의 하반(下半)과 함께 지중(地中)에 매몰(埋沒)되어 있다. 이 밭을 경작(耕作)하는 인근(隣近)고로박씨(古老朴氏)에 의(依)하면 전연 인위적(人爲的)피해(被害)를 입지 않았다 한다. 북방식지석묘(北方式支石墓)로서 가장 완전(完全)한 호례(好例)로 생각된다.



(圖 6 대곡리 지구부씨전 지석묘(垓谷里 池九富氏田 支石墓))



(圖 7 대곡리 현구봉차전 소재 지석묘(垓谷里 玄九鳳次田 所在 支石墓))

⑦ 춘성군북산면대곡리(春城郡北山面垓谷里) 나룻터 동안(東岸) 천석(川石) 중(中)에 지석묘(支石墓)1기(基)가 강향(江向)과 나란히 놓여있다. 외형(外形)은 절두원추(截頭圓錐)의 입면(立面)같고 석질(石質)은 역시(亦是) 편마암(片麻巖)이다(圖8). 개석(蓋石)의 크기는 장경(長徑) 2.1m 단경(短徑) 1.5m, 두께 0.4m, 둘레 6.2m, 지석(支石)1매(枚)는 강안(江岸) 밤나무 숲에 방치(放置)되어 있고 이 개석(蓋石)은 66년도(年度) 가을에 군야영전(軍野營前) ‘불도저’로 밀어서 현위치(現位置)에 갖다놓은 것이라 하는데 원위치(原位置)는 현 지석(支石)1매(枚)가 있는 곳으로 전기(前記) 고로(古老)가 추정(推定)하였다. 따라서 이 지석묘(支石墓)는 완전(完全)히 파괴(破壞)되어 유물(遺物)도 산실(散失)된 것으로 생각되나, 여타(餘他) 지석(支石)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석(支石)으로 보아 북방식지석묘(北方式支石墓)로 생각된다.

⑧ 춘성군북산면대곡리(春城郡北山面垓谷里) 나룻터에 동남(東南)쪽 50m 거리(距離) 천석(川石)중(中)에 지석묘(支石墓)1기(基)가 강향(江向)과 나란히 소재(所在)한다(圖9).

외형(外形)은 대략(大略) 장방형(長方形)이고 석질(石質)도 전(前)것들과 같다. 개석(蓋石)의 크기는 장경(長徑) 1.7m 단경(短徑) 1.3m, 두께 0.22m, 둘레 5.1m 지석(支石)은 전연 보이지 않고 개석(蓋石)은 두 대(頭大)의 천석(川石)위에 10cm 높이로 놓여 있어 현위치(現位置)가 아닌 것으로 의심(疑心)하였으나 이 나룻터에서 수년래(數年來) 도선(渡船)에 종사(從事)하는 청년(靑年 25세(歲)가량)의 말에 의(依)하면 67년에 중년(中年) 1인(人)이 와서 개석(蓋石)아래서 높이 약(約) 15cm되는 적갈색토기호(赤葛色土器壺) 1개(個)를 채취(採取)하여 갖다 함으로 현위치(現位置)가 원위치(原位置) 같기도 하고 지석(支石)이 보이지 않는 점(點)으로 보아 소위(所謂) 「支석이 없는 南方式支石墓」⁷⁾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보아온 지석묘(支石墓)들이 북방식지석묘(北方式支石墓)들인데 (사실 이곳의 지석묘(支石墓)들의 지석부분(支石部分)이 홍수(洪水)로 인(因)해서 대부분 매몰(埋沒)되어 있으나 원래(原來)는 지상(地上)에 노출(露出)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곳에 와서 갑자기 남방식지석묘(南方式支石墓)가 끼어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하나 천전리(泉田里)의 예(例)⁸⁾를 보면 가능(可能)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있을 발굴조사(發掘調査)를 기대(期待)할 수 밖에 없다.



(圖 8 대곡리(垓谷里) 나룻터 지석묘(支石墓) 불도저로 밀린 것)



(圖 9 대곡리(垓谷里) 나룻터 지석묘(支石墓))

3. 불적(佛蹟)

7) 前掲 韓國支石墓研究

8) 金元龍 前掲 春川泉田里의 支石墓赤石冢

1. 신남리지역(新南里地域)불적(佛蹟)

인제군남면신남리삼반(麟蹄郡南面新南里三班) 448번지(番地)에 봉은사지(鳳恩寺址)라고 전칭(傳稱)되는 곳에 석탑(石塔)1기(基) 석불(石佛)1구(軀) 및 석재(石材)들이 산재(散在)되어 있다. 이곳에는 삼간모옥(三間茅屋)의 소암자(小庵子)가 있고 여승(女僧)1인(人)이 상주(常住)하고 있다.

석탑(石塔)(圖10)은 이중기단(二重基壇)이나 하층기단(下層基壇)은 지하(地下)에 매몰(埋沒)되어 있고 탑신부(塔身部)도 현재(現在) 2층(層)만 남아 있으나 원래(原來)는 삼층탑(三層塔)으로 생각된다. 높이는 상층(上層)기단(基壇)부터 1.7m이고 상층(上層)기단(基壇) 갑석(甲石)의 길이 79cm, 석면(石綿)의 폭(幅)은 65cm이다. 옥개석(屋蓋石)의 낙수면(落水面)은 심한 곡선(曲線)을 이루고 층급(層級) 받침은 4단(段)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 후반기(後半期)작품(作品)으로 추정(推定)된다.

석불(石佛)(圖11)은 곤려사나불좌상(昆履舍那佛坐像)으로 석등연화대석(石燈蓮花臺石)위에 안치(安置)되어 있다. 불두(佛頭)는 결실(缺失)된 것을 「세멘트」로 후보(後補)하였다. 불고(佛高)61cm, 슬폭(膝幅) 56cm, 석등대석(石燈臺石)의 고(高) 21cm, 저경(底徑) 82cm이고 연화문(蓮花紋)이 양각(陽刻)되어 있다. 이들 석탑(石塔)과 석불등(石佛等)외(外)에도 치석(治石)한 부재(部材)들이 4.5개(個) 보이며 석탑(石塔)을 중심(中心)으로 약(約) 300평(坪) 넓이의 대지(垜地)와 전(田)에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와편(瓦片)들이 산견(散見)된다. 이들 고려(高麗)유적(遺蹟)이 발견(發見)되는 신남계곡(新南溪谷)은 홍천(洪川)에서 두촌(斗村) 내촌계곡(內村溪谷)을 거쳐 올라온 장협곡(長峽谷)이며 홍천(洪川)은 다시 남(南)으로 횡성(橫城) 원주(原州)를 거쳐 문막(文幕)·부론(富論)·지정(地正) 등지(等地)와 연결(連結)된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부론(富論)·지정(地正) 등지(等地)엔 고려(高麗)시대의 법천사지거둔사지(法泉寺址居屯寺址) 흥법사지(興法寺址)가 유존(遺存)되어 가(可)히 고려(高麗)문화(文化)의 성지(聖地)라 일컬을 수 있다. 다시 횡성지방(橫城地方)에도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불적(佛蹟)⁹⁾이 수개처(數個處)에 잔존(殘存)되고 있으며 홍천(洪川) 희망리(希望里)에는 역시(亦是) 고려시대(高麗時代)하대(下待)의 것인 희망리(希望里) 삼층석탑(三層石塔)(고(高)2m여(餘))과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있다. 내촌면동창리(內村面東倉里)에도 고려시대(高麗時代)전기(前期)의 불상(佛像)과 삼층석탑(三層石塔)(고(高)4m)이 있으며 인근지역(隣近地域)인 두촌면(斗村面)의 괘석리(掛石里)의 장남리(長男里)에 불적(佛蹟)들이 있다. 이중 괘석리(掛石里) 것은 사사삼층석탑(四獅三層石塔)으로 69년말(年末)에 홍천군청(洪川郡廳) 내정(內庭)으로 이 건(移建)하였으며 제작년대(製作年代)는 고려시대(高麗時代)전기(前期)로 보인다. 다시 홍천읍(洪川邑)의 남방(南方) 양덕리(陽德里)에 고약(高約) 1.6m의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삼층석탑(三層石塔)이 소재(所在)하여 수타사(壽陀寺)에도 고(高) 1.2m여(餘)의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석탑(石塔)1기(基)가 있다. 여기서 다시 본론(本論)으로 들어가서 신남리(新南里)삼층석탑(三層石塔)을 보면 비록 행정구역(行政區域)은 달리 하고 있으나 홍천군(洪川郡)내(內)에 산재(散在)하고 있는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소규모(小規模)석탑(石塔)과 그 수법(手法) 양식(樣式)등(等)이 서로 연결(連結)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계곡(溪谷)에서 발생(發生)한 고려시대(高麗時代) 불교문화(佛教文化)의 종착점(終着點)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계곡(溪谷)은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설악산(雪岳山)에서 끝난

9) 鄭永鎬 橫城의 佛蹟 考古美術 5卷 12號 6卷 1號 2號 5號

다.

2. 도수암(庵)출토불상(出土佛像)

인제군남면부평리산(麟蹄郡南面富坪里山) 40번지(番地)에 도수암이란 소암자(小庵子)가 1개(個) 있다. 여기서 68년(年) 6월(月) 23일(日)에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1개(個)가 출토(出土)되어 현재(現在)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보관(保管)되어 있다. 이 지점(地點)은 금번(今番) 댐으로 인(因)한 수몰지역(水沒地域)은 아니나 신남리(新南里)의 같은 계곡(溪谷)이므로 여기에 아울러 간단히 소개(紹介)하여 둔다. 불상(佛像)의 높이는 11.5cm이고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작품(作品)이다. 불상(佛像)전면(全面)에는 도금(鍍金)이 비교적(比較的) 잘 남아 있고 머리에는 삼산형보관(三山形寶冠)을 썼으며 보발(寶髮)은 길게 늘여서 귀앞까지 내려와서 어깨에서 두이타(耳朶)와 합쳐진다. 상호(相互)는 원만(圓滿)하여 통일기(統一期)의 일반적(一般的)인 모습이고 나신(裸身)에 천의(天衣)를 둘렀고 흉전(胸前)에 영락(瓔珞)이 드리워 있다.



(圖 10 신남리 삼층석탑(新南리 三層石塔))



(圖 11 신남리석조비노사방불좌상(新南里石造毘盧舍那佛坐像))

4. 결론(結言)

이상(以上)의 보아온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 결론(結論)지을 수 있을 것이다.

1. 지석묘(支石墓)는 모두 9기(基)가 발견(發見)되었으며 위치(位置)는 대개 강안(江岸)에서 100m 미만(未滿)의 강안단구(江岸段丘) 퇴적지층(堆積地層)에서 발견(發見)된다. 석질(石質)도 전부(全部)가 편마암(片麻巖)을 모암(母岩)에서 쪼개다 사용(使用)하였으며 크기도 비교적 작은 장경(長徑)이 3m 이하(以下)인 것들이다. 개석(蓋石)의 방향(方向)은 사방향(四方向)과 관계(關係)없이 강류향(江流向)과 일치(一致)하고 있으며 전형적(典型的)인 북방식지석묘(北方式支石墓)인데 홍수(洪水) 등(等)으로 인(因)하여 지석부분(支石部分)(석실(石室):매장시설(埋藏施設))이 지하(地下)에 매몰(埋沒)되었다.

10) 성격(性格)은 내장유물(內藏遺物) 등(等)이 발견(發見)되지 않아 단정(斷定)하기는 어려우나 지리적(地理的)인 위치(位置) 외형(外形) 규모(規模)에서 천전리(泉田里)의 지석묘(支石墓)문화(文化)와 같은 계통(系統)으로 추측(推測)된다. 따라서 이들 유적(遺蹟)의 주인공(主人公)들은 소양강(昭陽江)을 따라 내려 온 것이 아니라 기왕(既往)에 춘천지방(春川地方)에 와 있던 사람들이 강(江)을 거슬러 북상(北上)한 것으로 생각되며 관동지방(關東地方)과 직접(直接)교통(交通)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불적(佛蹟)은 단(單)1개(個)의 사지(寺址)이나 그것의 성격(性格)과 계통(系統)은 원성군부론면일대(原城郡富論面一帶)의 고려문화(高麗文化)를 시점(始點)으로 하여 홍천

10) 拙稿 洪川東倉里佛蹟 文化財 3號 1967

(洪川)으로 들어와 머물고 그 일단(一端)이 이 신남(信南) 부평지역(富坪地域)에 와서 멈춘 것으로 생각된다. 즉(卽) 소규모(小規模)삼층석탑(三層石塔)—(흥법사지(興法寺址) 삼층석탑(三層石塔)과 동창리(東倉里) 삼층석탑(三層石塔)은 4m허(許)—대개 2m허(許)의 석탑(石塔)으로 대표(代表)되는 홍천(洪川)의 고려문화(高麗文化)는 같은 영서(嶺西)의 오대산(五臺山)과 춘천(春川)의 그것과는 확연(確然)히 구별(區別)되는 것이다.